

올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꼬꼬마양배추’ 품종 재배 군산 소형양배추연구회

‘꼬꼬마양배추’ 품종을 재배하는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가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에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부문 국내 육성품종 재배단지(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가운데 올 한 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했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품종 농산물의 재배 규모화와 품질 균일화에 노력하며, 국내외 안정적 인판로 확보로 우리 품종의 인지도 확보와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재배단지다.

농촌진흥청은 2007년부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단지, 도(道)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한 단지 가운데 매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 결과 9곳의 재배단지가 수상했다. 대상은 ‘꼬꼬마양배추’ 품종을 재

배하는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 원을 수여한다.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농산물 수요 증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일반 양배추의 1/3 크기인 소형양배추를 소득작물로 선택해 2017년에 재배를 시작했다. 지난 2018년부터 소형양배추가 일반화된 일본, 대만 등에 수출을 추진해 해외 판로 확보와 인지도 제고에 나섰고 이후 국내 소비시장에 진입해 소형양배추를 군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했다. 그간 판매량은 872톤, 판매금액은 13억3,900만원에 이른다.

최우수상은 멜론작목반연합회(강원 춘천), 바이오수박연구회(충북 청주), 완도군버섯연구회(전남 완도) 3곳이 선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각각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우수상은 두레산수박공선회(강원 양구), 여주시배추연구회(경기 여주), 홍성군 딸기연구회(충남 홍성), 해금골드



‘꼬꼬마양배추’ 품종을 재배하는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가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에 선정됐다.

키위영농조합법인(전남 보성), 영주시 복숭아발전연구회(경북 영주) 5곳이 선정됐으며, 농촌진흥청장상과 각각 상금 70만원을 수여한다.

이번 발표식에는 농업 전문가(5명)와 국민 참여대(3명)가 참여했으며, 결과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의 우수성과 성공비결 등을 널리 알려 국내 육성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본보기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육성품종 재배단지가 잘 정착되도록 우리 품종의 안정적 인 현장 보급과 재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원 · 여성소비자연합 GAP 인증 홍보의 날 행사 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원’)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전주지회 관계자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전주시 소재 대형마트 2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에서 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이하 ‘GAP’) 인증 홍보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농원은 행사 기간 동안 대형마트·로컬푸드 직매장에 설치된 GAP 인증 농산물 전용판매대를 중심으로 홍보 전단지 등을 활용해 GAP인증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했다. GAP인증 홍보의 날 행사는 농원원 전북지원과 12개 시군에서 GAP인증 소비자에게 알리고, GAP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판매 소비자단체와 함께 매일 1회 이상 진행 중이다. /김윤상 기자



전국우정노조 전북본부 ‘배달 난지역’ 동행 배달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위원장 이행무)는 6일 완주군고산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들과 똑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 배달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과 추석 특별통기 기간 동안 일반 택배회사의 파업까지 겹쳐 우체국으로 몰린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고 고생한 집배원들을 위로하고 고간 피로가 누적된 조합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날까 우려해 상대적으로 배달 거리가 멀고 배달조건이 까다로운 우체국을 선정해 이루어졌다.

이행무 노조위원장의 집배원과 함께하는 배달은 6일과 7일 완주군고산우체국을 시작으로 8일 장수장계우체국, 14~15일은 고창해리우체국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 브랜드인 ‘예담채’ 브랜드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리향’ 경쟁력 제고 브랜드 활용영역 확대

전북농협 ‘예담채’ 브랜드관리위원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 브랜드인 ‘예담채’ 브랜드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브랜드관리위원회는 ‘예담채’ 공동 브랜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발한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도내 13개 시군군 협조농공공사업법인과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라북도 대표 브

랜드로서 전북농협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관리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5년 연속으로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수상한 바가 있다.

‘예담채’는 2008년 브랜드 출시 이후 3년간 농가맞춤형으로 조직화 및 품질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10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전라북도 최고급 쌀 ‘심리향’ (향미)까지 품목을 확대 출하하고 있

으며 ‘예담채 심리향’ 브랜드로 전북 쌀의 경쟁력을 키워 전북을 대표하는 최고급 쌀로 육성 중에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담채 심리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랜드 활용영역 확대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전북도 단위 우수농산물의 광역브랜드를 통해 농산물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소비자 유통 트렌드에 맞춰 우수농산물을 연 중 출하해 ‘예담채’ 브랜드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육성 및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줄줄 새는 실업급여’ ... 부정수급만 12만1849건

5년동안 365억원 환수 못해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 1,84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취업 등 거짓·미신고건수가 11만3,596건으로 전체 93.2%에 달했고, 금액 역시 930억 3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5%를 차지했다.



이러,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3.6%),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5년간 총 2,142억9,100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환수액은 전체의 83%에 그친 1,777억 9,500만원이었으며, 364억 9,600만원(17%)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상위 내역을 살펴보면, 한 수급자는 개인사업자로 퇴사했지만 사업주와 공모해 경정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1,7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중 1,188만원을

환수했지만, 재심사청구 진행 중으로 2·3차분 납부액은 미납하고 있다.

또 다른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개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숨겨 1,729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고, 결국 분할납부를 통해 현재까지 5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고용질벽이 지속되는 만큼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을 마련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카카오톡 챗봇 기반 ‘24시 상담서비스’ 개발

농어촌공 전북, 지난달부터 운영 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카카오톡 챗봇 기반의 24시 상담 서비스를 개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4시 상담서비스란 농지은행사업, 농업시설물 안내, 사용허가 등 공사의 주요서비스를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해당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상담증가 및 고객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완주임실지사가 협업해 개발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농어촌 가치함께 with 전북) 추가 후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고객편의 증진으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지난해 발생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지급 최대 138일 소요

민주 이원택 의원, “복잡한 절차 간소화해야”



지난해 발생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에 최대 13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747개 농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70.6일이었으며, 보상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138일이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은 행정명령에 따른 방제, 시·군청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군의 청구 1차 검토, 광역시·도의 2차 검토, 농촌진흥청의 3차 검토 이외의

청 수령, 지급 등 다단계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더해, 최근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된 데 있다. 2015년 68농가, 2016년 32농가, 2017년 55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손실보상금 평균 지급 소요일이 16일~18일 수준이었다. 그러나 피해 범위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2018년, 지급소요일이 49.4일로 급격히 늘었다. 급기야 확산추세가 이어진 2019년에는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154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은 양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은 작기를 놓치면, 1년을 잃는다면서 ‘시군, 도, 농촌진흥청의 각 7일~20일에 이르는 세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손실보상금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손실보상금 지급 소요기간〉

구분	농가수	면적 (ha)	평균 지급소요일 (경구~지급)	최장 지급소요일 (경구~지급)
2015	68	59.9	18.1	67
2016	32	19.7	16.6	31
2017	55	31.7	18.3	32
2018	135	80.2	49.4	111
2019	188	131.5	57.8	154
2020	747	395.1	70.6	138
2021	562	255.0		추진중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 지원 신속히”

민주 이원택 의원, 농식품부 장관에 병해충 피해 지원 촉구

올해 6~8월 중 강우 일수는 총 45일로 특히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잦은 비와 야간 저온으로 도열병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돼, 벼 재배 농가에 병해충 피해를 입히는 결정타가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아삭도열병(3만376ha), 세균벼열마름병(1만684ha), 깨씨무늬병(8,243ha) 등 벼 재배면적의 43%가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벼 생산량은 평균 대비 5~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벼 피해의 상당수는 ‘신동진 품종에서 나왔으며, 20년 이상 오랜 재배와 지역 내 집단식재로 인한 내병성 약화가 원인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장관을 상대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병해충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가들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한 신동진 대체 품종(참동진) 등에 대한 재배 확산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병해충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14년 나주지역 병해충 피해 당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언급하며, 피해지역 현장을 돌아보며, 농민 의견 청취를 종합해 본 바, 자연재해가 맞았다”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이번 병해충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